

빠른 정답

1	④	2	③	3	⑤	4	②	5	④
6	④	7	⑤	8	②	9	②	10	①
11	④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②	18	③	19	④	20	④
21	①	22	①	23	②	24	③	25	③
26	⑤	27	①	28	⑤	29	④	30	③
31	⑤	32	②	33	③	34	①	35	②
36	③	37	③	38	①	39	③	40	①
41	⑤	42	④	43	⑤	44	②	45	①

1~10 화작

1. ④

[정답 분석]

발표를 기록한 글의 두 번째 문단의 앞부분에 ‘~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를 통하여 발표 내용인 ‘뽕은 맛’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대답을 듣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반응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뽕은 맛’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발표를 기록한 글의 세 번째 문단에 제시된 내용은, 뽕은 맛이 나는 이유로 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문단에서도 단순히 촉각의 일부라는 설명만이 있을 뿐이다.
- ② 발표를 기록한 글에서 청중의 요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정보를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③ 발표를 기록한 글에서 청중이 주의해야 할 점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발표를 기록한 글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은,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청중에게 ‘뽕은 맛이 나는 식품’을 찾아보라는 권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 ③

[정답 분석]

감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타인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로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발표를 기록한 글 첫 번째 문단의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에서 메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뽕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를 통해서 발표 계획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발표를 기록한 글 두 번째 문단의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를 통해서 메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런데 뽕은맛은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해요’를 통해서 발표 계획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발표를 기록한 글 네 번째 문단의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를 통해서 메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하의 문장을 통해 발표 계획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발표를 기록한 글 다섯 번째 문단의 ‘뽕은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뽕은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뽕은 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를 통해서 메모의 내용과 발표 계획이 실현된 양상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3. ⑤

[정답 분석]

학생 2의 ‘~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학생 3의 ‘~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 성분이었구나.’를 통하여 발표 후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평소 생각했던 바를 수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학생 1’은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한 행위의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지 않다.
- ③ ‘학생 3’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 ④ ‘학생 1’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타인의 물에 녹는 성질에 대해 추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학생 2’는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지 않다.

4. ②

[정답 분석]

② '지도사'가 '진행자'의 오해를 정정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진행자'가 오해를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네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네, 업무 처리가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힘들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진행자께서도 참여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 ④

[문항 분석]

발문을 읽었을 때,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의 활용 계획 중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가)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계획의 적절성 보다는 활용 계획이 인터뷰에 드러났는가를 중점으로 문항을 보아야 한다. 활용 계획의 적절성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하여도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문항 발문 분석에 바탕을 둔 풀이는 아니다.

[정답 분석]

④ 모든 직장인이 스트레스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는 내용이 (가)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동영상 제시) 시청자 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숲의 짙은 녹음과 맑은 새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동영상 제시) 시청자 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숲의 짙은 녹음과 맑은 새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과 그 반응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숲에서의 활동이 실감 나게 느껴지네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표 제시) 이 표는 저희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참가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그림 제시) 이렇게 한 곳의 산림 치유원과 스물일곱 곳

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여러 시도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골라 참가 신청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 ④

[정답 분석]

(나)에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무와 대화하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얻은 좋은 영향만이 드러난다.

[오답 분석]

- ① 인터뷰에서 사용한 '숲은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는 표현을, (나)의 3문단에 인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드러내었다.
- ② (나)의 1문단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스트레스를 낮춰 주기' 때문임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나)의 2문단에서 '내 생각과 달리'라는 표현을 통해, 또래의 청소년들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찾는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어 기존 생각이 바뀌었음을 드러낸다.
- ⑤ (나)의 2문단에서,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하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7. ⑤

[정답 분석]

프로그램 참여 전에 '성격 때문에 속상해'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프로그램 참여 후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으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임을 드러낸다.

[오답 분석]

- ①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이 드러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마음 상태' 역시 직접적으로는 제시되지 않으나, 표현된 행동을 통해 마음 상태를 유추할 수는 있다.
- ②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이 드러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마음 상태는 드러나 있다.
- ③ 프로그램 참여 '전'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 후의 마음 상태는 드러나 있다.
- ④ 프로그램 참여 '전'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 후의 마음 상태,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은 드러나 있다.

8. ②

[정답 분석]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드러나 있지 않다. 3

문단에서 ‘인포그래픽’과 ‘픽토그램’을 비교, 대조하고 있으나, 이는 ‘인포그래픽’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이지 ‘인포그래픽’의 하위 유형을 나누는 내용은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ㄱ은 1문단에서 파악할 수 있다.
- ③ ㄴ은 3문단에서 파악할 수 있다.
- ④ ㄹ은 4문단에서 파악할 수 있다.
- ⑤ ㄹ은 2문단에서 파악할 수 있다.

9. ②

[정답 분석]

〈보기〉에서는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가 늘어날 것임을 진술하고 있다. 수정된 [A]에서는 예상 독자인 ‘학생’들을 명시하며, 인포그래픽을 ‘발표’, ‘보고서’와 같은 특정 상황에 적용하였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발표와 보고서’를 자주 쓰는 예상 독자인 ‘학생’들을 고려한 내용이며, 예상 독자들이 얻는 효용이 드러나도록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A]의 내용은 예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필자가 예상 독자에게 제안 및 추천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보기〉와 [A] 모두 특정한 관점에 편향되어 작성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방향 똑바로 보자. 고쳐쓰기 방향을 거꾸로 봤으면 이 선지 쓰기 딱 좋다.
- ④ 글의 도입에서 문제 제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A]는 글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10. ①

[정답 분석]

(나)의 4문단에서는 논문을 인용하여 인포그래픽이 관심 유발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건의문에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심 유발 효과가 확인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알림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자’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근거로 기능한다.

[오답 분석]

- ② (나)에 언급된 연구 논문이 건의문에 인용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건의문의 ‘문제 상황’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해당 건의문의 문제 상황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정보 알림판을 읽지 않는다.’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건의문의 건의 사항은 알림판을 인포그래픽으로 작성해 달라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알림판이 현재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으로 알림판을 평가할 수 없다.

- ④ 건의문에는 학생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인포그래픽 사용 목적’이 아닌 ‘알림판을 읽어 본 적이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 ⑤ 건의문에는 학생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인터뷰의 내용은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이 아닌 ‘알림판에 관심이 가지 않는 이유’에 해당한다.

11~15 문법

11. ④

[정답 분석]

용언의 어간 ‘견디-’와 ‘-어’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가 결합하여 [견더서]로 발음되면서 어간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ㅟ’로 교체된 예입니다. ‘ㅟ’는 반모음 ‘ㅟ’ + 단모음 ‘ㅣ’로 구성된 이중 모음인데, 어간의 ‘ㅣ’가 어미의 ‘-어’와 만나 ‘ㅟ’가 되는 과정에서 단모음 ‘ㅣ’가 반모음 ‘ㅟ’로 교체되며 [ㅟ]로 발음된 것입니다.

[오답 분석]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ㅟ’가 첨가가 된 결과입니다.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하여 [차도]로 발음된 것은 단모음 ‘ㅏ’가 탈락된 결과입니다.
-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하여 [잠가]로 발음된 것은 어간의 단모음 ‘ㅡ’가 탈락된 결과입니다.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워라]로 발음된 것은 어간의 단모음 ‘ㅜ’가 어미 ‘-어’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단모음 ‘ㅜ’가 반모음 ‘ㅜ’로 교체된 결과입니다.

12. ⑤

[정답 분석]

‘논둑길’은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인데, 3문단에 따르면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이므로, ‘논-둑-길’이 아닌 ‘논둑-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오답 분석]

- ① 2문단에 따르면 접사는 표제어에서 다른 말과 결합하는 부분에 붙임표가 쓰이므로, 표제어 ‘맨-’에서 접두사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조사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어라 붙임표가 쓰이지 않으므로, 표제어 ‘를’에서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용언 어간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므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은 '살다'가 표제어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복합어의 붙임표는 구성 성분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므로, 합성어 '앞집'의 표제어 '앞-집'에서 띄어 쓰면 안 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13. ④

[정답 분석]

4문단에서 붙임표가 쓰이지 않은 두 경우를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와 ㉠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쫓- + -아'가 '조차'가 된 경우, '참- + -아'가 '차마'가 된 경우, '붙- + -어'가 '부터'가 된 경우는 모두 ㉠에 해당되지만, '잡- + -우'가 '자주'가 된 경우에서 '-우'는 5문단에서의 '무덤'의 '-엄'과 같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는 여전히 그 어원인 '잡았다'라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4. ②

[정답 분석]

㉢의 '아주'는 부사로 관형사인 '옛'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실현된 예입니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명사, 관형사,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오답 분석]

- ① ㉡의 '빵은'은 명사 '빵'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주어로 쓰인 예입니다.
- ③ ㉣의 '어른'은 명사 '어른'이 조사와 결합 없이 보어로 쓰인 예입니다.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거나 보조사가 붙어 이루어지거나 조사가 생략된 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문장에서 주어는 '우리'이고 '어른'은 보어 역할을 합니다.
- ④ ㉤의 '장미였다'는 명사 '장미'에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인 '였다'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인 예입니다.
- ⑤ ㉥의 '세'는 수사가 아닌 수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 '세'가 의존 명사인 '마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 예입니다.

15. ⑤

[정답 분석]

'·뿌·메'는 '쓰-(동사의 어간) + -움(명사형 어미) + 예(부사격 조사)'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쓰다'는 '사용하다(用)'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입니다. 참고로 중세 국어의 '쓰다'가 아닌 '쓰다'는 '글씨를 쓰다(書), 모자를 쓰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말·쓰·미'는 '말씀 + 이(주격조사)'로, '·흥·배'에서 '배'는 '바 + ㅣ(주격조사)'로 분석됩니다. 주격 조사 '이'와 'ㅣ'가 각각 쓰인 것으로 그 형태가 다릅니다. 주격 조사 '이'는 자음(받침)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ㅣ'는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 ② '하·니·라'의 '하다'는 동사가 아닌 현대 국어의 형용사인 '많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 ③ '·이·를'과 '·새·로'에 왼쪽에 찍힌 점을 방점이라고 하는데 이는 강약이 아닌 말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 ④ '·히·여'와 '便便安한·키·고·져'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아닌 사동 표현이 쓰인 예입니다. '히여'는 '히(어근)- + -이(사동접사)- + -어'로 분석할 수 있고, '便便安한·키·고·져'는 '便便安한 + -히- + -기 + -히- + -고져'로 분석되는데 '-기·히-'는 현대 국어의 사동 표현인 '-게 하다'에 대응하는 표현입니다.

16~19 문학

[16~19] 현대 소설

이기영, 「고향」

16. ⑤

[정답 분석]

'안승학'의 과거부터 현재 이 고을에 살게 되기까지의 관한 정보를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 '민판서 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돌아온 사람' 등의 서술 내용이 모두 서술 대상인 '안승학'에 대한 개괄적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오답 분석]

- ① [A]에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으므로 '독백적 서술'을 기준으로 정답을 판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정서적

반응’에 관련해서는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의 반응은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서술자의 정서적 반응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선지입니다.

- ② [A]에서는 서술 대상의 과거 내력을 서술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성찰적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 ③ ‘병렬적 서술’과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볼 때, 같은 정보에 대한 반복적 제시가 판단의 근거입니다. [A]의 전반부에서는 서술 대상인 ‘안승학’의 과거와 현재, 후반부에서는 그가 ‘이 고을’에 살게 된 연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과적인 부분이고 병렬이 아니며 고로 정보의 반복 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선지입니다.
- ④ 서술 대상인 ‘안승학’의 외양이나 행동과 관련된 서술이 없으므로 ‘묘사적 서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7. ②

[정답 분석]

‘안승학’은 이웃 사람들에게 우편소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직접 시연하며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가 ‘똑똑한 체’를 하기 위함이지, 이웃 사람들에게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마을 사람들’이 전봇대에 ‘귀신을 잡아 넣어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거나, 엽서가 하루 만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며 ‘조хват속’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 ③ 새로운 문물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안승학’과, 그렇지 못한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근거로 새로운 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 ④ ‘마을 사람들’이 ‘접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는 반응에서 새로운 문물을 접한 그들의 직접적 반응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조хват속(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야릇하거나 신통한 일의 속내)’이라 표현했다는 점에서 정서적 충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 ⑤ ‘조хват속(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야릇하거나 신통한 일의 속내)’의 어의를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우편이 빠르게 도착하는 모습을 처음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을 근거로 ‘낯선 문물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18. ③

[정답 분석]

‘안승학’은 ‘요구 조건’을 거부하면서 ‘화가 나서 담뱃대를 탁 밀어 던’지는 등의 단호한 거절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염려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오답 분석]

- ① ‘문간에서 주인을 찾’으라는 ‘안승학’의 말에 ‘김선달’은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라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를 들은 ‘안승학’이 ‘김선달’에 대해 ‘괘씸한 놈’이라 생각하는 것 또한 ‘김선달’의 발화 의도가 비아냥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 ② ‘희준’의 말에 대해 ‘안승학’이 “벌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라며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의 함의를 볼 때 이미 ‘안승학’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 ④ ‘요구 조건’을 두고 ‘안승학’과 ‘다섯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승학’이 확실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이에 대해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라는 거부 의사의 재확인을 거치며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장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 ⑤ ‘안승학’은 ‘다섯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런 사람들의 방문에 ‘안승학’이 심리적 동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19. ④

[정답 분석]

‘안승학’이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한 이유는 전후 맥락으로 보아 그에게 갑자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달려들어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심리는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낸 모습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 가난한 처지였던 ‘안승학’이 현재의 지위를 누리게 된 이유는 주인 대신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음’을 얻었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소작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 ② ‘안승학’은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는 ‘근본’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근대 문물이 유입되던 당시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난 인물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 ③ ‘안승학’은 ‘친구의 심부름으로’ 우연히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탔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기>의 내용인 ‘근대 문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 ⑤ ‘피차의 물질상 손해’라는 것은 양쪽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지만, 상황을 살펴보면 ‘안승학’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요구 사항’을 무시한 채 ‘나라를 베는 것’을 중용함으로써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20~30 독서

[20~25] 인문·예술

20. ④

[정답 분석]

(가)는 ‘예술의 정의’라는 화제와 관련된 관점인 ‘모방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모방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 대안적 관점인 표현론과 형식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술 작품 비평’이라는 화제와 관련된 관점인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적 관점인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론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가)와 (나) 모두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 가는’ 절충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가)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시도였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인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가)의 화제인 ‘예술의 정의’, (나)의 화제인 ‘예술 작품 비평’에 대한 이론들을 제시할 뿐, 이러한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나열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1. ①

[정답 분석]

형식론은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 ②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미 있는 형식은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며, 진정한 예술 작품은 정신적 대상이라는 관점은 형식론이 아닌 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표현론’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형식론은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형식론은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2. ①

[정답 분석]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합니다. 뒤샹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이므로, ‘그 대상의 재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방론자들은 이를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모방론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 ③ 표현론자들은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므로,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한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판단할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인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의 바로 뒤에 ‘표현론’이 제시된다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 ④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

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도론'이 등장했습니다. 제도론은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입니다. 따라서 뒤상이 제도론을 「샘」외에 다른 변기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예술 정의 불가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합니다. 따라서 예술 정의 불가론자들은 기존의 이론 중 하나인 '표현론'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23. ②

[정답 분석]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에 해당합니다.

즉, 대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라는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신발이라는 대상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쳤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그린 것에서 화가 A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 ③ 텐은 맥락주의 비평가에 해당합니다.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신발을 그린 것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신발이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 ④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

성'한 점에서 이 그림이 우수한 작품임을 언급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프랑스는 인상주의 비평가에 해당합니다.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그림 속의 신발을 보고 '자신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24. ③

[정답 분석]

B는 ㉠의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입니다. (나)에 따르면 ㉠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합니다. 따라서 B 또한 대상에 대해 가지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비평한 것이므로,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A는 ㉡의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입니다. (나)에 따르면 ㉡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의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상황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A는 ㉡의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입니다. (나)에 따르면 ㉡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의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A에서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어 예술 작품을 비평한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 ④ B는 ㉠의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입니다. (나)에 따르면 ㉠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합니다. 따라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들이 나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하다'라는 내용은 비평가 자신의 인상, 주관적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 ⑤ B는 ㉠의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입니다. (나)에 따르면 ㉠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이 고통과 좌절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은 비평가 자신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반영된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25. ③

[정답 분석]

㉔의 이론(理論)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를 의미하지만, 밑줄 친 이론(異論)은 '다른 이론이나 의견'을 의미하므로 동음이의어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① ㉓와 밑줄 친 전제(前提) 모두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음이의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㉕와 밑줄 친 시기(時期) 모두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시점'을 의미하므로 동음이의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㉑와 밑줄 친 근거(根據) 모두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에 그 근본이 됨. 또는 그런 까닭'을 의미하므로 동음이의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㉖와 밑줄 친 시각(視角) 모두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의미하므로 동음이의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6~30] 사회

26. ⑤

[정답 분석]

지문 1문단에 따르면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은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높아지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지문 4문단에 따르면 조례는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되므로 행정입법에 속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모두 같은 제정 주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②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행정입법 중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③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27. ①

[정답 분석]

선지의 '이러한 제한'이 가리키는 해당 앞 문장에 따르면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위임명령은 어디까지나 위임 근거 법률에 위임 받은 범위에 맞게 근거 법률의 어구를 확대,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해석하여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제 사항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지문 2문단에 따르면 위임명령에서 포괄적 위임은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될 때 그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이므로 위임 근거 법률에 지정된 위임받은 범위가 없는 경우인 포괄적 위임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한편'이라는 병렬의 접속어를 판단했다면 포괄적 위임과 '㉑'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2019학년도 29번 문제 풀어 보라. 틀릴 확률이 높을 것이다.
- ③ '이러한 제한'은 위임명령과 위임 근거 법률에 대한 것으로 후자가 설정한 범위와 후자가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전자가 임의로 어기거나,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의 정확한 반영 여부는 제시된 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이러한 제한'은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 근거 법률을 통해 위임받아 제정하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으로, 행정부가 위임 근거 법률에 지정된 위임 범위를 어기고 위임명령을 제정하거나 위임 근거 법률 어구의 의미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위임명령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의회가 행정 기관으로 권한을 맡길 때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⑤ '이러한 제한'은 위임명령과 위임 근거 법률에 대한 것으로 후자가 설정한 범위와 후자가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전자가 임의로 어기거나,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의 특성 반영 여부는 제시된 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8. ⑤

[정답 분석]

지문 3문단에 따르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게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고서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문 2문단에 따르면 위임명령에서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첨단 기술 관련성에 비례하여 넓어지므로 위임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면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2문단의 상관 관계 대소 관계를 정리했어야 온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지문 3문단에 따르면 본래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인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지문 3문단에 따르면 본래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인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행정 규칙이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제정되는 경우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고 지문 3문단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④ 위임된 사항의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고시나 예규로 위임된 사항이 제정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부분은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즉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9. ④

[문항 분석]

현수막 설치에 관련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토대로 <보기>를 통해 지문 내용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 ㉡, ㉢는 각각 위임 근거 법률, 위임명령,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지문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대입하여 지문의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분석]

지문 4문단에 따르면 조례는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지문 2문단에 따르면 위임명령은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의 제3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가 아닌 ㉢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의 제16조는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조례를 통해 그 표시 방법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이는 ㉠의 제3조에 관련된 사항이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3조와, 제16조를 병렬적으로 나누었어야 합니다. 27번을 버벅거린 학생들은 해당 선지를 선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 ③ 지문 4문단에 따르면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지문 2문단에 따르면 위임명령 또한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⑤ 지문 4문단에 따르면 조례는 지역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임명령은 행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사안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의 적용을 받되 ㉡는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으나 그 반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0. ③

[정답 분석]

- ㉢ ‘예측하다’는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③의 ‘헤아리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 ① ㉠ ‘실현하다’는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대상이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는 ‘나타내다’와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 ‘반영하다’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을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다.’라는 뜻을 갖는 ‘드러내다’와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 ‘대응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마주대하다.’라는 뜻을 갖는 ‘마주하다’와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 ‘구별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변하여 전과는 다르게 되다.’라는 뜻을 갖는 ‘달라지다’와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1~33 문학

[31~33]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심청전>

31. ⑤

[정답 분석]

㉠은 심청이 한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심봉사는 심청이 한 거짓말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 언제 가느냐?”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화의 핵심은 ‘장승상댁 수양딸로 간 것은 괜찮다.’입니다. 애초에 심청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근심을 하게 될까봐’입니다. 이를 알 리가 없는 ‘심봉사’는 심청의 거짓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우며, 해소하는 단초를 보여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참고로 ‘단초’란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를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 ①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는 초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심청은 가난하여 공양미 삼백 석을 장만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려고 한다 하였고, 뱃사람은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고 말하며 이를 허락합니다. 이 대화에서 아버지에게 ‘공양미 300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로 감추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심청’이 거짓말을 결심하는 상황을 보면, ‘어찌 부친을 속이라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 ③ ‘거짓말’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심봉사’의 대화를 보면, 심청의 거짓말에서 드러난 인물인 ‘장승상댁 노부인’이 ‘심봉사’의 대화에도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는 말에서 심봉사도 아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심청이 한 거짓말을 듣고 말한 ‘심봉사’의 대화를 보면, 심봉사는 의심 없이 심청이 하는 말을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 ②

[정답 분석]

황후는 3년 동안 용궁에서 지내는 바람에 부친의 얼굴이 가물기물한 상태입니다. ‘황후’는 ‘심봉사’에게 “처자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심봉사’는 이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심봉사의 대화를 보면 ‘공양미 300석, 인당수에

제물이 된 이야기, 15세라는 나이’ 등 심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었는데, 황후는 이 말을 들은 후 ‘정녕 부친인 줄을 아시되’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아버지임을 깨닫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삼궁이 명을 받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새’란 구절을 고려해 보면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보다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봉사는 황후와 달리 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③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라는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심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 있다는 부분은 적절하지만, 이유가 제시되려면 적어도 ‘~이유로 부인과 사별하게 되었다.’와 같이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 ④ 심청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남경 선인들에게 300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심봉사의 대화를 고려해 볼 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라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라는 서술을 고려해 볼 때, ‘발언이 끝나기 전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발언이 끝난 후에 행동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3. ③

[정답 분석]

‘어찌 아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에는 아버지께서 눈을 뜰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이든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효행 그 자체를 실천하겠다.’는 심청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을 걱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눈 어두운 백발 부친’과 ‘영영 이별’하는 것에 대해 심청은 정신이 아득하고 일에도 뜻이 없고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을 지내도 ‘엷질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라며 다시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해 벌어진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 이 현실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심청은 날이 점점 가까워 오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라는 생각과 그 다음의 서술에 집중합니다. 이 행동은 곧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부친 곁에 남

아 있지 못하는 현실)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합니다.

- ④ <보기>에서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심봉사의 개안이 뒤늦게 실현된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자식만 잃었다’에서 심청의 자기희생과 심봉사의 눈이 아직 뜨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안의 지연은 곧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합니다. 게다가 심봉사가 한 말 중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다.’를 보면, 자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 ⑤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에요.”라는 말을 듣고 심봉사는 깜짝 놀라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개안을 하는 장면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한 설명입니다.

34~37 독서

[34~37] 과학

34. ①

[정답 분석]

윗글은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기체에 따라 병원성 바이러스나 병원성 세균의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원성 세균이 사람을 감염시키는 작용기체는 윗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 윗글의 4문단에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라고 하였으며 5문단에서 알코올 화합물과 같은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코올 화합물이 병원성 세균에 살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윗글의 1문단에서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윗글의 4문단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독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윗글의 1문단에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의 구성 성분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살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35. ②

[정답 분석]

윗글의 5문단에서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독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을 산화시켜 단백질을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이포염소산 소독은 병원체 내부에서도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윗글의 4문단에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킨다고 하였으며,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합니다.
- ③ 윗글의 1문단에서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또 다른 세균 혹은 바이러스)에 비해 건조, 열, 화학 물질에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균 포자가 바이러스에 비해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은 연역적으로 타당합니다.
- ④ 윗글의 5문단에서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알킬화제가 병원체 내부의 핵산 염기에 결합되어 유전자 발현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합니다.
- ⑤ 윗글의 2문단에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에 작용하여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고 보는 것은 적절합니다.

36. ③

[정답 분석]

2문단에서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병원체가 갖는 구조가)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그 예로 감염방지제는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되기도 하며,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는 이보다 독성이 약한 ‘소독제’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미생물 화학제들(㉠과 ㉡)은 모두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 ① 3문단에서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 하지만,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즉 ㉠은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지만 ㉡은 포자를 사멸시킬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1문단에서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 물질에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3문단에서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라고 하였으며, ‘감염방지제(㉡)는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되기도 하며,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는 이보다 독성이 약한 ‘소독제(㉢)’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화학 물질에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하므로, ㉠과 ㉡보다 독성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역뿐 아니라 상처 소독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3문단에서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은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뿐만 아니라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도 사멸시킬 수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3문단에서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뿐만 아니라 ㉡ 또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되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7. ③

[정답 분석]

기능	A	B	C	D
지질 손상	·	↓	·	↓
캡시드 손상	·	·	↑	↑

윗글의 4문단에서 ‘알코올 화합물(A)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형성시키며,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크다.’라고 하였으며,

3문단에서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미생물 화학제는)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기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기>를 통해 C는 알코올 화합물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킨 것이라 하였고, B는 알코올 화합물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킨 것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C가 B보다 클 것이며,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C가 B보다 더 낮을 것입니다.

[오답 분석]

- ① <보기>를 통해 B는 알코올 화합물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킨 것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질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B는 A보다 작을 것이며 인체에 대한 안전성 또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켰기에 (= 사람의 세포막 손상이 줄어들음) B가 더 높을 것입니다.
- ② <보기>를 통해 C는 알코올 화합물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킨 것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질 피막이 없는(=캡시드로만 이루어진)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C가 A보다 클 것이며 지질 피막에 대한 요소에는 변화가 없었기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을 것입니다.
- ④ <보기>를 통해 D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 약화 + 캡시드 손상시키는 기능 강화’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질 피막이 없는(=캡시드로만 이루어진)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D가 A보다 클 것이며,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켰기에 (= 사람의 세포막 손상이 줄어들음)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D가 A보다 높을 것입니다.
- ⑤ <보기>를 통해 B는 알코올 화합물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킨 특성을 가지며, D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 약화 + 캡시드 손상시키는 기능 강화’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질 피막이 없는(=캡시드로만 이루어진)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D가 B보다 클 것이며,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킨 특성을 D와 B 모두 갖고 있기에 동일할 것입니다.

38~45 문학

[38~42]

- (가)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 (나)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이덕무, 「우언(迂言)」

38. ①

[정답 분석]

〈제1수〉에 언급된 공간인 ‘산수 간 바회 아래 뛰집’은 화자가 ‘내 분’에 맞게 머무는 공간입니다. 이는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공간이 자신의 분수에 알맞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경험적 성격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6수〉의 공간인 ‘강산’은 ‘내 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님군 은혜’로 인해 머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로 보아 ‘강산’은 ‘은혜’라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선지입니다.

[오답 분석]

- ② 〈제2수〉에서는 ‘보리밥 풋늬물’이라는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는 구체적 소재로 시상이 시작됩니다. 〈제3수〉 역시 ‘잔 들고 혼자 앉아’라며 술잔이라는 구체적 소재로 시상을 시작하고 있기에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2수〉에서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라며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는 속세의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5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성질이 게으르기에 ‘하늘’이 ‘인간 만스’의 일이 아닌 ‘강산’, 즉 자연의 일을 맡겼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자연 속에 있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④ 〈제3수〉는 종장을 통해 자연과의 몰아일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가 현재 ‘먼 뵈’를 바라보고 있기에 현재에 대한 긍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4수〉에서 역사적 인물인 ‘소부 허유’가 등장하지만 이들이 자연 속에서 살았던 선택을 긍정하며 자연을 즐기는 한가로운 즐거움(님천한흥)을 예찬하고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제3수〉에서 ‘먼 뵈’를 보며 반가움을 느끼고 ‘도하’라며 ‘좋다’라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수〉에서 자연에서의 즐거움이 임금의 은혜로부터 온 것을 드러내지만 이를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39. ③

[정답 분석]

〈제3수〉에서 화자는 ‘뵈’를 보며 ‘님’보다 더 반갑다고 표현합니다. ‘뵈’에 대한 반가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던 님’이라는 비교 대상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를 ‘님’과 화자의 거리감으로 해석하여 화자와 외부 세계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답 분석]

- ① (가)에서 외부 세계를 바라볼 때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수〉에서 화

자는 ‘산수 간’에서 뛰집을 지으려하지만 ‘그 모른 늬들’은 화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와 ‘늬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로 거리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늬들’이라는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제2수〉에서 ‘바회 굿 뽈’에서 ‘슬꺱지 노니노라’며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녀나쁜 일’은 ‘부를 줄이 이시랴’라며 세속적 일은 부러워하지 않는다며 자연과 세상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녀나쁜 일’로 드러나는 속세와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속세라는 외부 세계와의 소원한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제4수〉에서 ‘님천’은 자연이라는 공간을, ‘한흥’은 그 곳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화자는 ‘님천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낫다고 말하며 ‘님천’을 긍정적 장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님천’이라는 자연의 공간과 가까워짐으로 자연이라는 외부 세계와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⑤ 〈제6수〉에서 ‘강산’의 삶이 자신의 분수가 아니라 ‘님군 은혜’ 덕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님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 ①

[정답 분석]

작가는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사는 곳과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삶의 유형을 ‘큰 부끄러움, 작은 부끄러움, 큰 즐거움, 작은 즐거움’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차등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화시켜야 더 나은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향 / 상황	산림	시정
은거	큰 즐거움 3~4/100	작은 즐거움 ★(me) = 0~1/100
명리	큰 부끄러움 50/100	작은 부끄러움 100/100

[오답 분석]

- ② ‘나’는 ‘산림(山林)’에 사느냐 ‘시정(市井)’에 사느냐에 따라, 또 각각 그 곳에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느냐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이 은거에 마음을 두면, ‘큰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백에 서넛쯤’됩니다. 그리고 ‘산림’에 사는 사람들이 명리에 마음을 두면 ‘큰 부끄러움’을 누리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백에 반’정도 됩니다.

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즐거움'을 가진 경우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큰 부끄러움'은 '산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 '작은 즐거움'은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으로 각각 '산림'과 '시정'이라는 장소와 '명리'와 '은거'라는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⑤ '명리'는 '부끄러움'에 '은거'는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은 화자가 '은거'를 '명리'보다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쓴이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작은 즐거움'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즐거움'에 대응하는 가치인 '은거'의 가치를 높게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1. ⑤

[정답 분석]

㉠의 '어리고 하얌'은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를 '내 분'이라며 화자 자신의 분수에 맞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초장과 중장에서 자연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늬들'에 대한 겸손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보면, 화자가 자연에서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자세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느끼고 있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생각이 멀고,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 모른다는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에 이를 가장 높은 가치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자신은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며 작은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 모른다'고 보아도, 역으로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누린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어리고 하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회피한다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② ㉡에서 말한 사람들이 잘 누리지 못하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높은 가치라고 보는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지 이를 잘못된 생각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③ ㉠과 ㉡ 모두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구절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를 알고 있다

는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일반화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④ ㉠과 ㉡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42. ④

[정답 분석]

해당 선지는 <보기>의 둘째 내용인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와 관련지어야 합니다. (나)에서 '소부 허유'의 삶의 모습은 선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에서 글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작은 즐거움'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나)에서 자연이라는 무정물 대상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여 자연이라는 외부 세계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다)에서 산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면 '큰 즐거움',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면 '작은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자연에 즐거움의 가치를 부여했으며, 이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호감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합니다.
- ③ (다)에서 글쓴이는 큰 즐거움, 작은 즐거움, 큰 부끄러움, 작은 부끄러움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세계를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합니다.
- ⑤ (나)의 <제5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게으른 본성을 하늘이 알고 강산을 지키는 일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다)의 '나'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다르기에 가장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와 (다) 모두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3~45] 현대시

(가) 김수영, <사령>

(나)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43. ⑤

[정답 분석]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 간간이 / 자유를 말하는데’와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보면, 동일한 구절이 1연과 5연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자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시를 마무리하는데, 특히 이런 부정적 정서는 자기를 향해 비웃는 ‘우스워라’라는 다소 자조적인 구절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이 나타났다는 말은 타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① 시간적 표현으로 볼 만한 구절은 4연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언급한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다’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 ‘화자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화자의 인식 변화가 있으려면 적어도 이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 ② 해당 작품의 대상은 ‘활자’입니다. 화자는 활자를 ‘벗이여’와 ‘그대’로 지칭하는데, 이를 고려해 볼 때, 호칭을 전환하였다는 말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대상에 대해 ‘경외감’을 지녔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외감’이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인데, 해당 작품에서 화자가 갖는 태도는 ‘성찰’입니다. ‘자유를 말하는 활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공경심이나 두려움이 나타나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란 ‘이 황혼도, 이 고요함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저 고요함도’에서 말하는 ‘이’와 ‘저’를 가리킵니다.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 시선에 포착된 대상을 언급함으로써 ‘마음에 들지 않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상의 움직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황혼, 잡초, 고요함’을 보면 움직임과 관련된 표현도 없습니다.
- ④ 화자는 1연과 5연에 ‘~아니냐’와 같이 물음의 형식으로 문장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문장을 해석해 보면, ‘우습다, 나의 영은 죽어 있다.’인데, 이는 ‘활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화자가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자의 깨달음을 다시 ‘부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44. ②

[정답 분석]

‘훈련받나봐’ 다음에 바로 ‘아니야’라고 부정을 한 것에서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으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부적 원인’보다 1연의 ‘강물에 붙들린 배들,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와 3연의 ‘언 강물’을 고려해 볼 때, ‘외부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① ㉠에서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는 태도를 고려해 볼 때, ‘붙들린 배’는 관심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시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시상 전개의 계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②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는 모두 ‘우리’가 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시시덕거리다’는 ‘실없이 웃으면서 조금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다.’는 의미인데, ‘실없이 떠드는 모습’과 바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과 ‘냉소’입니다.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은 ‘일렬로 늘어선 배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우리’는 비웃고 있으므로 ‘냉소’도 확인 가능합니다.
- ③ ‘흐르다’의 주체는 ‘한강물’입니다. ‘한강물이 흐르지 못하다’는 말은 강이 언 상황이자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표현에서 ‘강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해석은 곧 ‘외부의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합니다.
- ④ 음성 상징어인 ‘꽝꽝꽝’은 청각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강 추위가 지속되는 장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추위로부터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굳고 단단하다.’는 의미를 지닌 ‘견고하다’와도 잘 연결되므로 해당 선지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45. ①

[정답 분석]

<보기>의 내용을 보면,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문제적 상황은 바로 ‘언어가 다른 방식도 아닌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에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고 말합니다. 이로 볼 때,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 자조한 것까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성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으나,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는 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것,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것’에서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위축된 화자의 상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과 같은 해석을 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선지가 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 ② ‘우리’는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느라 시시덕거리기도 하고 ‘빙그르르 /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보기>에서 언급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는 설명과 연결되므로,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화자가 ‘하늘 아래’에 있고, 이 공간에서 느낀 바가 ‘고요함’이므로,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기>와 연결해 보면, <보기>에서 화자가 있는 현실을 ‘의사소통이 제한된 사회, 경직된 사회’로 여기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 날아가지 못하는 말’ 모두 숨죽이고 있는 모습과 연결되는데, 이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가 제한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오로지 ‘활자’란 점은 해당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기>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자’로 한정된 상황을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나)를 보면 ‘날아가지 못하는 말’에서 자유가 억압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⑤ (가)에서 화자는 ‘황혼, 잡초, 푸른 페인트빛, 고요함’ 등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기>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주변 세계는 곧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는, 경직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강물이 얼어서 ‘저어가지 못하는 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기>에서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가 그렇게 사용되지 못한 점에서 비판한다는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강물이 언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